

# 모멘텀 약화 제약·바이오株... 셀트리온 등 줄줄이 추락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소식에 기존 백신관련기업 매력 떨어져 대장주 셀트리온 22.89% 하락

전문가 “현재 고점, 유의할 시기 개별주식 재료 중심 접근해야”



셀트리온 1공장 전경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중국 헝가리발 유행성 위기에 증시가 하락하자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미국 머크사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기존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업종보다 개별주식의 재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바이오 업종 주요 10종목으로 구성된 'KRX 바이오 K-뉴딜지수'는 23.11% 하락했다. 테마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13.72%) ▲셀트리온(-22.89%) ▲SK바이오사이언스(-28.36%) ▲셀트리온

헬스케어(-26.80%) ▲SK바이오팜(-19.35%) ▲셀트리온제약(-26.44%) ▲유한양행(-8.74%) ▲한미사이언스(-22.19%) ▲녹십자(-28.94%) ▲한미약품(-16.64%) 등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 ◆대장주 '셀트리온' 목표주가 ↓

특히 업종 내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경우 3, 4분기 실적 감소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키움증권·신영증권은 35만원에서 28만원, 신한금융투자는 32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췄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

가 유럽에서 승인과 정부 비축 물량 계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램시마SC 재고 부담이 커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413억원, 영업이익 17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28%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는 컨센서스를 각각 23%, 28%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매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사형 항체치료제를 개발해온 셀트리온과 달리 미국 머크사는 먹는 치료제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투심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내 렉키로나의 유럽 승인과 그에 따른 수주 기대감과 램시마SC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것이라 전망이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럽과 미국의 렉키로나 진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성과에 따라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 ◆‘비(非) 코로나19 관련 종목 위주 접근 유효’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산업을 관통하는 특정 핵심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산업을 예상하기보다 철저히 개별주식의 이슈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해주는 여타 업종들과 달리 바이오 업종은 10년 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다. 결국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며, 주어진 정보 하에서 가장 좋은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국내 바이오 업종은 투자심리 변동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할 전망”이라며 “현재는 고점이어서 유의할 시기로 판단한다. 개별주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업종의) 기술을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다”며 “단지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몰릴 기업에 미리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며, 코로나19 관련 종목이 아니라 비(非) 코로나19 관련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백신과 치료제 등 관련 종목이 재차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면역 회피 변이가 등장해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분야에서 선수를 나간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당분간 ‘위드코로나’ 본격 시행이 예상되면서 코로나 관련 종목 소외될 수 있으나 비코로나 분야인 순수 바이오(생명공학) 업체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호실적’ 삼성전자 주가 주춤... 우려 선반영

분기 매출 70조 ‘깜짝 실적’에도 4분기 실적 우려에 7만원대 답보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렸지만 지난 8일 7만1500원으로 전일 대비 0.14% 하락 마감했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각각 7만1300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기 실적 7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 우려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 회복 움직임 속에서 전자 제품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서면 D램을 중심으로 업황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5조6340억원이다. 내년 1,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3조원대로 줄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내년 하반기 반도체 시장의 회복을 선반영하면서 올 연말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사태 속에,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전자 영업이익 15조8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부문이 책임진 것으로 분석

된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주가는 이미 메모리 업황의 다운사이클 진입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반도체 실적 개선과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요 호조를 감안하면 이른 시점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수급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메모리 재고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폭은 2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3분기부터 성수기 진입과 공급 증설 둔화로 점차 수급은 개선되고 메모리 가격도 반등할 전망이다. 메모리 업체 주가는 업황을 약 6개월 선행한다는 가정에서 올 11월 이후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AI기업 탈바꿈... 숨은 메타버스 수혜 기업

### 株라쿨라의 종목 이스트소프트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11일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아직 주목받지 못한 숨은 메타버스 기업”이라며 주가 재평가를 예상했다.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 종합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립돼 200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대표 유틸리티인 알툴즈(알약·알PDF·알송 등)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을 포함해 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 중이다. 우리에게 흔히 보안솔루션 ‘알약’으로 알려진 이스트소프트의 사업부는 인터넷 소프트웨어(S/W) 사업, 인터넷 포털 사업, 인터넷 게임 사업, 커머스 사업, 자산운용업으로 나뉜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주요 사업부의 2021년 반기 매출 비중은 인터넷 S/W사업 38.1%, 인터넷게임사업 26.7%, 인터넷포털사(자회사 줌인터넷) 23.85%, 커머스사업(AR 안경쇼핑몰

아이) 6.45%, 자산운용업(엑스포넨셜자산운용) 4.84%로 전 사업부에 걸쳐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보안, 백신 S/W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트소프트는 자회사 딥아이를 통해 ‘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 라운드는 3D 증강현실(AR)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안경을 가상 피팅 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1000개의 안경브랜드가 입점, 200개의 제휴 안경원을 확보했으며, 강남과 판교에 직영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해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애플 IOS 대표 AR서비스로 선정됐고, 국내에는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트소프트는 기존 인물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한 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간의 모습과 가깝게 복제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버추얼 휴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 현대건설

## 마천4구역 수주성공 총 수주액 3조 육박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3구의 유일한 뉴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534표 중 466표의 찬성표(득표율 87.3%)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이 마천4구역에 제안한 ‘디에이치 클라우드’ 조감도.

/현대건설

마천4구역은 송파구 마천로61 마길 12-10 (마천동 323) 일대 6만 653㎡를 대상으로 건폐율 22.68%, 용적률 297.71%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33층의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강남 3구의 유일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마천4구역은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용적률 300%’ 결정 고시를 획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마천4구역 수주로 올 해 총 12개 사업지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2조 9827억원으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전국 14곳서 7202가구 청약 접수

### 분양 캘린더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7202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공공분양·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11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경기에서는 인천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 ‘이천자이 더파

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인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강원에서는 ‘교통 하늘채 스키파크’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단지는 강원시 마지막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약 7만㎡ 규모의 교통2공원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